

‘동학정신 헌법전문 포함 건의안’ 채택

김종철 장학수 도의원 공동발의

김종철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

장학수 “항일, 3·1, 4·19, 5·18, 6·10, 촛불의 모태”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과 장학수 의원(정읍1)이 공동발의 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집강소 설치 등을 통해 민중사회의 평등사회의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가 과소 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새기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



김종철 의원



장학수 의원

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한 국민 수호운동으로 민중이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를 역설했다. 장학수 의원은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 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온 국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총리,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최영규 도의원, 기부 통한 주산교육 활성화 제안

수확적·논리적 사고에 좋은 ‘주산교육’을 재능기부와 교육기부를 통해 활성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최근 아날로그 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 대부분이 담당 유행하는 교육보다 사고력과 집중력, 끈기를 기르는 주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재능기부와 교육기부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제3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산은 주관으로 하는 셈으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청·속독능력 등을 향상시켜 주며, 뇌의 퇴보를 막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주산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의 계산 능력을 길러줘 최근 전국적으로 안산력을 높이기 위한 주산 열풍으로, 실질적인 수학교과능력과 함께 집중력과 자신감, 응용능력을 키워주고 죄뇌·우뇌가 골고루 발달하도록 도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산을 만지작거리기 손가락 끝의 움직임은 한번의 실수도 용서가 되지 않기에 ‘손가락 끝의 밖에 나온 뇌’라고 칭한다”면서 “이는 주관 학습이 손가락 끝 트레이닝에 의해 뇌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의 ‘주산교육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화 능력과 함께 판단력, 집중력을 향상하고, 주관임을 움직이며 셈을 이미지로 형성화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죄뇌와 우뇌가 고루 발달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주의 깊게 숫자를 읽어나는 학습으로 관찰력이 커진다. 이와 함께 치매예방을 위한 주산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도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산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와 노인층에서 주산 붐이 크게 일고 있으며, 매년 10억원의 최고상금을 책정하고 주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정호영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촉구

도내 지역아동센터 (이하 아동센터)의 운영이 매우 열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호영 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아동센터가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방과 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놀이, 교육, 문화 활동, 급식 등의 종합적인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필요성이 날로 증가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아동복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한데 반해 아동센터의 운영은 늘 어렵고 종사자들은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조속히 설립해야”

도의회, 강용구 도의원 발의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 지역균형발전 차원

전북도의회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찬란한 문화유적이 국가차원에서 발굴·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백제 뿐만 아니라 가야문화에 이르는 한반도 고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고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연구기반이 없어 타 지역 문화재 연구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에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도 단위 광역단

체를 중심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신라문화유산 조사를 위해 경북에 경주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시작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역문화 연구·조사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없어서 인근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용구 의원은 “이미 전라북도는 고대



강용구 의원

마한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백제문화가 꽃피웠음이 밝혀졌고, 지난 1982년 남원에서 가야계 고총이 발견된 이래 최근까지 443기의 고총·고분과 호남지방 최대 규모인 129개 제철유적, 65곳의 삼국시대 유일의 불수유적, 37곳의 고대산성이 분포된 것이 확인되면서 호남 가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북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국립연구기관 설치”를 강력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은 이어 “특히,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마한·백제·후백제·가야 문화유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고대문화를 조사하기 위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공공도서관 찾는 취업준비생 지원 필요”

최명철 도의원 5분 발언... 취업정보·강연·상담 등

도내 공공도서관을 찾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철 의원(전주4·국민의당)은 25일 전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을 찾는 취업준비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과 강연, 상담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명철 의원은 “해가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찾아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을 직접 만나 얘기해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극한 상황이 발생



최명철 의원

하지 않게 치유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서비스를 공공도서관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도서 제공만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창구 역할과 강연, 상담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취업준비생들이 ‘토닥토닥’ 위로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절실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최영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해 가입률 높여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제 34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

최영일 의원은 우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재해발생이 빈번한 시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싼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1ha당 4만7,212원으로 농가부담은 20%인 9,224원인 반면, 가장 비싼 지역인 전남 진도군은 1ha당 64만7,962원으로 농가 부담액은 12만9,592원에 달해 1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도내만 비교해도 진안군은 12만3,304원인 반면, 부안군은 42만 6,132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최영일 의원은 또,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고, 농가자부담률을 10%까지 낮추는 작업과, 무사고 환급 제도의 부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의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배워서 고쳐 고쳐

지난 4월 전주 우암동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주,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로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명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반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